

광주 고교생 20% '인터넷 중독'

■ 전남대 간호학과 영영란씨 444명 설문

여학생보다 남학생들 중독 '심각'

성인물 검색·우울한 학생이 위험

광주지역 고등학교 10명 중 2명은 인터넷 중독 위험에 빠져 있으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중독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울감을 쉽게 느낄수록, 친한 친구가 없을수록, 인터넷 이용시간이 짧을수록, 흡연 및 음주경력이 있을수록 인터넷 중독 위험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27일 전남대 대학원 간호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영영란(여·32)씨의 학위논문 '고등학교 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밝혀졌다. 영씨는 광주지역 4개 고등학교 학생 4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논문을 작성했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형 인터넷중독 자가진단척도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 조사대상 학생의 12.2%가 잠재위험군, 7%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19.2%가 인터넷 중독 위험에 빠져 있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남학생의 17.6%가 잠재위험군, 11.2%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여학생(잠재위험군 6.1%, 고위험군 2.4%)보다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했다.

친한 친구가 없는 학생의 25%가 잠재위험군, 12.5%가 고위험군으로 드러나 친한 친구가 1~4명인 학생(잠재위험군 13.9%, 고위험군 8%)들에 비해 쉽게 인터넷 중독에 빠져 들었다.

흡연이나 음주 경력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중독 정도가 심했다.

인터넷 사용시간에 있어서는 3년 미만이 잠재위험군 21.4%·고위험군

광주 고교생 인터넷 중독 정도 (단위:%)

	일반	잠재위험군	고위험군
성			
남성	71.2	17.6	11.2
여성	91.5	6.1	2.4
아버지 직업			
있음	81.1	11.8	7.1
없음	78.9	15.8	5.3
경제수준			
상위	80.2	12.1	7.7
중위	83.7	11.2	5.1
하위	71.4	15.6	13.0
친한 친구수			
1~4명	62.5	25.0	12.5
5명 이상	78.1	13.9	8.0
흡연경험			
없다	81.9	13.2	4.9
있다	72.9	10.4	16.7
음주경험			
없다	85.4	11.3	3.3
있다	69.9	12.3	17.8

16.1%, 3~5년 미만인 잠재위험군 12.2%·고위험군 5.2%로 5년 이상(잠재위험군 10.3%, 고위험군 5.9%)보다 중독 위험에 쉽게 노출됐다.

인터넷으로 성인물 검색을 자주 하는 학생의 경우 35.7%가 잠재위험군, 21.4%가 고위험군으로 드러나 게임이나 웹서핑, 메신저 및 채팅을 주로 하는 학생에 비해 중독 위험이 훨씬 심했다.

특히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와 인터넷 중독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우울 점수가 잠재위험군 27±11.6, 고위험군 31.4±8.7로 일반 학생(19.4±10.1)에 비해 크게 높아 쉽게 우울감을 느끼는 학생일수록 인터넷 중독 위험에 빠져든 것으로 드러났다.

영씨는 "광주지역 고등학교생의 인터넷 중독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학생들의 우울감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남학생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적절한 지도에 초점을 맞춰 인터넷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대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인터넷 중독 판정 기준은= 인터넷 중독은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학업수행이나 직장 및 가정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사회적·정신적·육체적·금전적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정보통신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인터넷 사용자 스스로 중독 위험 여부를 측정·판단할 수 있도록 '한국형 인터넷중독 자가진단척도 프로그램(K적도)'을 개발해 2003년 2월부터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www.iapc.or.kr)' 등을 통해 일반에 무료 보급하고 있다. 중·고생의 경우 총점 108점 이상이면 고위험군, 95~107점은 잠재위험군, 94점 이하의 일반사용군으로 분류된다.



신학기 학용품 구입 분주

광주시내 일선 학교가 오는 3월 2일부터 개학과 함께 입학식을 치를 예정인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들이 문구점 등을 찾아 각종 학용품을 구입하며 신학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간 '복지사 자격증' 조심

돈 받고 발급...전혀 쓸모 없어 피해만

지난해 말 김씨(가명·56)씨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김씨에게 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해준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교회에서 요구한 60만원을 지급하고, (사)한국사회복지협회에서 발급한 수료증과 자격증(사진)을 동시에 받았다. 수료증에는 "본 협회의 위탁기관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을 수료했다"고 적혀 있지만, 김씨는 단 한 시간의 수업도 받지 않았다.

김씨는 "교회 측은 국가 공무원으로 취직할 수 없을 뿐 복지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자격증에는 성명, 생년월일과 함께 '복지사(1급)'이라고 적혀 있다. 김씨는 자격증을 들고 복지관 등을 찾아 취업을 하려 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전혀 쓸모없는 자격증"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김씨와 같이 50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한국사회복지협회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1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가에서 공인하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국가시험을 통과했을 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위탁·발급하고 있다. 김씨의 민원을 접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피해자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김씨에게 '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한 한국사회복지협회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교회 내 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촌 살해·2명 중상입힌 20대 검거

이종사촌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후 택시를 강탈, 달아난 20대가 범행 7시간 만에 붙잡혔다. 순천 경찰은 27일 이모와 이종사촌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종사촌을 살해한 강모(25)씨를 살인 등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6일 밤 10시30분께 순천시 조례동 S 아파트에서 이모 신모(55)씨와 딸 이모(35)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종사촌 누나를 살해한 혐의다. 가슴부위를 흉기에 찔린 이모 신씨

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범행 직후 인근 야산으로 도주한 강씨는 27일 새벽 5시23분 조례동 모 병원 앞에서 전남 14마 31××호 택시를 탄 뒤 흉기로 운전사 정모(66)씨의 목과 옆구리를 찔러 차량을 빼앗아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7일 오전 6시15분께 호남고속도로 주안요금소 부근에서 순찰차로 진로를 차단, 강씨를 검거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나원침 (7064) 김중두



평등선도저의 중점특강을 누리는데 3.636 최대연계! (월간 4~5만원 최대 60% 할인!) 수련선도사 피오리 0621-367-9000

벼 수매가 항의, 트럭 돌진

구례경찰은 27일 벼 수매가 인상 문제로 농성을 벌이던 중 읍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4%)에서 화물차량을 몰고 농협 건물에 돌진, 기물 등을 파손한 조모(4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대리운전 기사 만취 손님 성추행

○광주 북부경찰은 27일 술에 취해 잠이 든 손님을 추행한 대리운전 기사 A씨(24)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50분께 자신이 대리운전을 하던 여자손님 B씨(28)의 승용차를 광주 북구 용봉동 모 PC방 주차장에 세워놓고 성추행했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광주 서구 화정동 술집에서 5km정도 떨어진 북구 양산동까지 대리운전을 하던 중 만취한 B씨가 깊은 잠에 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여수 화재 참사는 人災”

경찰 수사 발표...직원들 근무 규정 어겨

일지 등을 조사한 결과, 발화 당시 직원들이 2층에 있었으며 3층에는 외부 경비용역업체 직원 1명만 근무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수의 정밀감식

결과 여수화재는 실화나 방화 등에 의한 인적 원인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누전 등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처벌 수위와 범위에 대해 검찰 등 관계부서와 협의한 뒤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화재 직후 조선대 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이던 중국인 황모(37)씨가 26일 오후 4시께 숨져 사망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어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국산 소금 '국산' 둔감 30대 판매상 검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7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박모(38)씨를 대외무역법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조사 중이다. 서해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해 9월부터 중국산 소금 5천120포대를 구입, 국내산 포대에 담은 일명 '포대 같이' 수법으로 거래처 및 소매상인들에게 600포대를 판매해 4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해경 조사 결과 박씨는 중국산 소금을 30kg 들이 한 포대당 2천100원에 구입, 국산으로 둔감시킨 후 포대당 7천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조이트레블

여행사: 02-2711-7138
02-2711-9218
02-2711-9219
02-2711-9220
02-2711-9221
02-2711-9222

1. **일본 관광 패키지** (4박 5일) 4,500,000원
2. **유럽 관광 패키지** (10박 11일) 8,500,000원
3. **미국 관광 패키지** (14박 15일) 12,500,000원

소리투어

1. **신선한 자연 풍경** 4,500,000원
2. **신선한 자연 풍경** 4,500,000원
3. **신선한 자연 풍경** 4,500,000원
4. **신선한 자연 풍경** 4,500,000원

여행 패키지

1. **일본 관광 패키지** 4,500,000원
2. **유럽 관광 패키지** 8,500,000원
3. **미국 관광 패키지** 12,500,000원
4. **중국 관광 패키지** 6,500,000원